남의 복지쟁탈 선봉에 서는 오지랖

(민32:1~42)

16.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 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8.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20.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3.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남의 복지쟁탈 선봉에 서는 오지랖>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남의 복지쟁탈 선봉에 서는 오지랖'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남이야 복지를 살든 말든 나만 약속의 땅 복지를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 전혀 안 통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식 주변의 친구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남편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별 볼일 없고 환희에 찬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환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환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희는 독일과 영국이 축구 시합을 할 때에 독일 사람들이 환희를 느끼면 영국 사람들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힘이 듭니다. 환희를 느끼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니 힘들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함께 환희할 수 있는 그런 환희를 찾아야 됩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잘 되면 옆 사람이 울고, 옆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픈 정도의 환희로는 우리의 삶이 환희에 찰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경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억압을 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이 못 돼야 한다는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환희에 찬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환희는 나도 환희에 차 있고 옆 사람도 환희에 차 있어서 옆 사람의 환희 때문에 내 환희가 더 커지는데 이런 게 진짜 환희이고 진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지의 환희이고 복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지의 삶은 나의 환희와 옆 사람의 환희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경쟁이 사라진 환희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환희에 찬 삶을 유지하고 나의 기쁨이 고사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 옆 사람이 똑같이 복지의 삶을 살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복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르니 복지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지랖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오지랖'은 부탁 없는 참견이고 요청 없는 간섭입니다. 복지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복지를 살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이 오지랖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복지를 쟁탈해 주기 위한 선봉에 서지 않는다면 내 복지가 고사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를 믿고 아니 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데도 복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옆 사람이 복지를 얻게 하는 선봉에 나서는 오지랖을 부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지쟁탈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이 복지, 복된 땅에서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기쁨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실제 내용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복지의 모토를 말하자면 '내 마음은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구름위의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이 거하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에 참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올라갔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가지시는 교제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고, 주님은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오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이 머무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몸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모든 사물관계, 대인

관계, 환경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격을 장갑 삼으셔서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작정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지의 삶이고 또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삶을 더 축약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 이 세상의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계속 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나를 장갑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에 주어지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바로 복지의 삶입니다. 이러한 복지가 획득되는 것은 내 마음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서 복지는 시작되고 완성되는데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서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동선에 연합하여 따라가면 반드시 복지가 이루어지는 실제 내용인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제 모압, 아모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을 남북으로 길게 위로는 헐몬 산에서부터 아래로는 사해까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지류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목초지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분배받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확보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모세가 나무랍니다.
‘가데스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려고 할 때 좌절하고 불신앙이 폭발해서 사십년을 광야에서 돌다 다 죽었는데,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것은 그 때와 같은 영향이 다른 아홉 지파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동편 땅을 얻을 때는 열두 지파가 다 나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너희는 동편 땅을 얻고 나서 서편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는 편안하게 이곳에 남아있겠느냐?’라고 노발대발을 하자 르우벤과 갓 지파, 나중에 참여한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있고 또 많은 적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을 지어서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가축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를 짓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서고 그리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우리의 형제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요단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때 모세가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너희에게 이 땅을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편 땅도 결코 너희들의 차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에 수22:3~4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동쪽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합니다. 내 옆의 형제들의 복지가 완전히 획득 된 뒤에야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때는 제비를 뽑기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요단강 건너 서쪽에서 살게 하셨는데 동편에 머무르려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음이 약속해주는 복지의 성취는 내 옆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복지가 성취되지 않고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듣는데도 말씀처럼 내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나오지 않고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옆 사람의 복지쟁탈의 선봉에 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획득 되어진 복지 자체가 희미해지고 복지의 복됨이(기쁨 됨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복지를 취득하고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면 반드시 복지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지가 정말로 내게 복으로서의 삶의 터전이 되고 내 삶이 환희로 넘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육체적 조건, 재정적 조건, 환경적 조건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만나는 내 옆의 사람들을 위한 복지쟁탈전의 선봉에 서지 않기 때문이고, 오지랖을 피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부탁한 적이 없는데 참견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간섭해야 되는 오지랖이 없으면 내 복지가 복지답게 지켜질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귀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획득된 나의 복지가 복지다운 복지로 경험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요건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려졌던 이유와 같습니다. 내가 매일 혼자서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머리로 십자가를 기억할 수는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5감관을 통해서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감관을 통해 세상이 내 마음으로 밀고 들어올 때에 내가 혼자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는 묻혀버리고 무력화되고 맙니다. 내 마음이 세상더미를 스스로 헤치고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더미에 파묻혀 있을 때에 외부로부터 십자가 사건이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때서야 세상더미에 묻혀있던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저 멀리 갈릴리에 살던 선민들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에서 양이 죽는 것을 내가 죽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죽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말씀이 있어야 복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드리는 주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드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복지가 유지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들려진 재현된 십자가의 연합이 하늘에서의 깊은 교제까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의 교제와 땅에서 준비하신 복지가 생명력으로 탱탱하게 활력이 넘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옆 사람과의 복지쟁탈전의 선봉에 나서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 할 때에 '우리'라는 말에서 나와 주님이 엮어집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여'라는 말에 주님과 김 집사님이 묶여서, 주님이 이루신 아버지와의 교제에 김 집사님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데 '김 집사님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보기에는 김 집사님이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를 담고 있고 재정 문제를 담고 있고 건강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적 여유를 추구하기 보다는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김 집사님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다스림이 임하시고, 김 집사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김 집사님의 인격을 장갑 삼으셔서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기도도 나를 위해 드렸던 기도에서, 내가 김 집사님의 자리에 서서(내가 김 집사님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이고 김 집사님의 복지를 획득하는 일의 선봉에 나서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적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제는 향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내 영성이 살찌고 풍성해지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아들

딸들, 남편, 아내, 부모님 등 타인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주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에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서로 보고 싶어 할 때에 만날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인데 내 영성이 자꾸 풍성해집니다. '영성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적용하는 정도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과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므로 복지가 더 풍성해집니다.
빌4: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데 환경적 조건을 보면 이렇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험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며 자기의 복지를 풍성하고 아주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복지를 위한 쟁탈전의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기도를 통한 중보기도를 해도 복지쟁탈전의 선봉에 나서도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간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을 중보기도 할 때 물질에 대한 관계에서 앞의 세 구절을 적용합니다. '김 집사님이 물질로 허덕이고 있지만 물질관계에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물질이 문제가 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김 집사님이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장갑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인간관계의 기도도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만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환경적 관계인데 암에 걸렸다면 '하나님! 김 집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님의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아픈 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집사님의 힘으로는 안 되니) 그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집사님의 마음이 떠난 몸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게 하시며 고통 중에도 집사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갑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셔서 모든 열악한 환경가운데서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복지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복지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손을 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보로 옆 사람의 복지쟁탈전의 선봉에 서는 이 오지랖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생활이 빈약해지고 기도생활이 빈약해지면 우리 복지가 활력을 잃고 고사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날마다 몇 번의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합니까? 이게 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나가세요. 잘못되었습니다. 소리치고 나무라고 꾸짖고’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22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복지쟁탈전의 선봉에 설 때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면 복지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나의 복지와 내 옆의 사람들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옆의 사람들은 복지가 있는지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받은 적 없는 간섭과 요청받은 적 없는 참견의 오지랖을 통하여 그들의 복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쟁탈전의 선봉에 나서므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나의 복지에 활력이 생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